

농번기 농업인력 적기 지원 '총력'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6월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농촌인력증개센터 전주원협·전주농협 2개소 운영 등 적극 추진

전주시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오는 6월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주 특산품인 배와 복숭아 등을 생산하는 전주지역 과수농가에서는 해마다 4월부터 6월 사이 열매숙기와 봉지 씌우기 등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올해도 농가 인력부족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고 농촌인력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활성화 △유관기관·자원봉사자 및 청원 농촌 일손돕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력지원상황실에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자 모집창구를 설치해 오는 6월까지 인건비가 부담되는 소농가에게 대학생과 일반인 등의 단기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부족한 농촌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업반 운영과 농촌인력

력증개센터의 경우 지난해 전주원에 협동조합 1개소에서 올해 전주농업협동조합이 추가 선정돼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원에협동조합은 올해 채소·과일 10개 반 110여 명의 영농작업반을 투입해 4000여 명을 중개할 예정이며, 올해 신규 선정된 전주농업협동조합에서는 2개 반 60명의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농번기 농촌인력 3000여 명을 중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10개 마을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등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지원하고, 45개 농가에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편의장비 사업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 총 183농가에 3017명의 인력을 중개해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농협과 함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게 적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캠틱종합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는 26일 전주 팔복동 소재 전주 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기술이전 및 기술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캠틱-기술보증기금 '맞손'

기술이전·기술금융 지원 강화 위한 업무제휴 협약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흠, 이하 캠틱)과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선희, 이하 기보)는 26일 전주 팔복동 소재 전주 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기술이전 및 기술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업체, 캠틱과 함께하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캠틱은 잠재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 보증 등의 기술금융 분야를 담당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화에 적극 나서게 된다.

협약의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창업(준비), 도약, 성장, 재도전 단계별로 준비된 기보의 기술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투·융자, 보증, 출연, 복합금융 등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혁신창업허브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주)비아의 경우 기보의 벤처 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7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받았다. 그 외 산업용 드론분야의 우리아이오, 5G 통신분야 티엔티 등 전주혁신창업허브에 입주한 여러 기업이 기보의 기술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캠틱 노상흠 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캠틱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든든한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기보와 적극 협력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캠틱은 현재 전주 팔복동에서 약 50여개사의 기술 제조기업이 입주한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캠틱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도내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투·융자, 보증, 출연, 복합금융 등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혁신창업허브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는 최근 개점한 전주푸드 효천직매장 인접부지(효자동2가 1375번지)로, 대지면적 1667㎡에 연면적 4100㎡, 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지상 1층과 2층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전시 및 판매장과 코워킹스페이스 등 사회적경제 유통·성장 지원센터로 활용된다. 또, 3층과 4층은 주민공동체공간, 다목적실, 공연 및 전시장 등 생활·복합문화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당초 구상한 기본계획과 당선작을 토대로 5월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까지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향후 효천지구의 상징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지난 25일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행사공간인 오거리 문화광장 '전주레드큐브' 조형물에서 전주돌까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박형배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자 맞춤형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장 육성·노인복지관 치유 텃밭 조성 등 추진

전주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과 치유농장 육성을 통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건강 회복을 돕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올해 총 1억8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유농장 육성 △양지·금암·노송천 노인복지관 치유 텃밭 조성 △전라북도종합사회복지관 반려식물 공간조성 지원 △어르신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가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상품 개발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및 관련 기자재 등 구입·홍보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치유농장을 1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또, 목표 고객층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후 효과 검증 및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구

상이다. 시는 또 노인복지관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적합한 노인형 상자텃밭 설치와 할합·당노 등 생활습관성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치유텃밭을 조성하고, 인지기능은 물론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적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실내 수직정원과 야외 텃밭정원을 조성하고, 어르신과 아동, 청년기 여성 등 다양

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레인보우팜 치유농장을 발굴해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결과 참여한 어르신의 우울감 개선률 50%,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 8% 등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치유농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유농업 공간 및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장주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사회적경제 제품 윈스톱 지원 플랫폼 만든다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디마건축사사무소 작품 선정

전주시 사회적경제 제품의 성장·판매·유통을 윈스톱으로 지원할 통합 플랫폼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시는 주민생활·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성장·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의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디마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선작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접한 로컬푸드와의 연계성 △내·외부 공간계획 △주변환경의 조화 △주차 계획 △재료 활용 및 랜드마크적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경쟁작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사업비 115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은 생활·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제



전주시는 주민생활·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성장·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의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디마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품의 성장·판매·유통을 윈스톱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을 조

어린이날 '어린이 교통약자' 대상 이지콜 무료 운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약자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료나 재활을 위해 병원을 찾는 어린이 교통약자가 어린이날만큼은 비용 걱정 없이 이지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이며 사전에 유선전화(063-271-2727)로 신청한 뒤 어린이날 당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추가 모집

전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승용차와 승합차의 운행을 줄인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주지역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모집인원이 기존 660명에서 1005명으로 345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차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 중에 해당 최대 1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자다. 대상 차량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휘발유, 경유, LPG 등이며, 친환경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 회원가입 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링크)로 접속해 차종확인이 가능한 차량 정보 사진,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2년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할 경우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고객센터 혹은 수용가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을 통해 가입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5월 12일까지 추첨을 통해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1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원·천변 등 생활제조 프로그램 운영 재개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생활제조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27일부터 시민들의 장기적인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제조 광장' 사업을 재개한다. 지난 1983년 전주시민운동에서 출발한 '생활제조 광장' 사업은 전주시민

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제조 전문가와 함께 가까운 공원과 천변 등 47개소에서 주 5회 새벽·저녁 시간대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운영 장소는 거마공원과 덕진공원, 전주월드컵경기장, 한바탕국민체육센터 등 47개 공원·체육시설·아파트 공터·천변 등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상황 꼼꼼히 살펴

박형배 부시장·관련 부서장 등 참석 현장점검

전주시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한창인 옥토CGV주차장 부지를 찾아 영화관들에게 평생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행사공간인 오거리 문화광장 '전주레드큐브' 조형물에서 전주돌까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박형배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오거리 문화광장 △영화의 거리 △영화제 주 행사공간 전주돌(옥토CGV주차장) △전주영화제작소 등 영화제가 진행될 주요 장소를 돌아보며 운영·의전·교통·시설·미관·복지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영화제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참석자들은 전주국제영화제의 랜드마크인 '전주돌'과 전주리운지 구성에

한창인 옥토CGV주차장 부지를 찾아 영화제 관계자로부터 해금 시설물 설치사항 등 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박형배 전주 부시장은 "2000여 명의 시민 및 방문객이 운집하는 공간인 전주돌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공간 구성이 이뤄져야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영화제 공간 요소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보완해 영화제 기간 동안 모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57개국, 217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새우으로 개막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원 및 팔복예술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